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민 은 정[†] 홍 창 희 이 민 영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이 제안되었다. 연구 2에서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그리고 자녀의 적응간의 인과적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심할수록 부모의 갈등이 심하고, 부모의 갈등은 가족 기능을 악화시키며, 가족 기능이 악해질수록 자녀는 적응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제안한다.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제성 음주, 부부갈등, 가족기능, 자녀의 적응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와 관련한 문제를 질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나 일탈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은 문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보

다는 숨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병원이나 치료기관에서 치료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생활하는 문제성 음주자가 많다. 문제성 음주자란 장애로 진단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그 사람의 음주 문제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민 은 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FAX : 051-581-1457 / E-mail: ejmin74@hanmail.net

심각하다고 여기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음주 문제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손영균, 1993; Jones & Houts, 1992).

우리나라의 음주율이 77%로 매우 높고, 알콜중독의 평균 유병률은 22%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호영, 남궁기, 이만홍, 민성길, 김수영, 송동호, 이은설, 1984),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주로 음주자나 음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살펴보자 한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적응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낸 연구들을 보면, 부모가 문제성 음주자인 자녀들은 부모가 문제성 음주자가 아닌 자녀들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았다(Clair & Genest, 1987; Jackson, 1985; Jarmas & Kazak, 1992; Rodney & Rodney, 1996).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은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고, 죄책감, 무가치감, 열등감, 자기 비난 등이 많았다. 대인관계에서도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은 지나치게 통제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매우 민감하였다(Jarmas & Kazak, 1992; Jones & Houts, 1992).

하지만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과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간에 적응상의 어려움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대학생들의 수치심 정도, 자살시도 여부,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해 평가한 Wright 와 Heppner (1991)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egrin과 Menees(1996)와 Werner(1986)의 연구에서도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정도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종

합해보면, 연구 대상이 병원이나 치료기관, 법적 기관 등 임상적인 집단이었을 때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였지만, 대학생 등의 비임상집단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 유무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문제성 음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적응 문제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하나로 부부의 갈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부부의 갈등은 가정 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부부의 갈등은 문제성 음주자의 두드러진 특성이며,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와 격렬한 다툼을 하기도 한다(APA, 1994). 문제성 음주와 관련된 가사 책임의 태만,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별거나 이혼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Burns, 1984; Orford, 1990; Power & Estaugh, 1990).

부모의 갈등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갈등이 심한 가족의 자녀들은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 등의 행동 문제와 철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Buehler, Krishnakumar, Anthony, Tittsworth, & Stone, 1994; Emery, Fincham, & Cummings, 1992; Erel & Burman, 1995). 부부의 갈등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가족 기능을 악화시킨다.

가족 기능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긴장과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족의 체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문제성 음주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비난을 많이 하며,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자녀의 요구나 감정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정서적인 지지를 오히려 자녀에게 기대하기도 한다(Jones & Houts, 1992).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부모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받은 정도가 훨씬 적었다(Clair & Genest, 1987; Rodney & Rodney, 1996). 가족 기능을

응집력, 표현력, 가족 내의 전반적인 갈등에 근거하여 측정할 때,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을 응집력이 낮고, 서로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며, 가족 내에 전반적인 갈등이 많다고 지각하였다(Clair & Genest, 1987; Jarmas & Kazak, 1992; Werner & Broida, 1991).

문제성 음주자는 음주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부모의 갈등이 심하고 가족 기능이 약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가족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을 제안 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구조 모델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그리고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있는 8 중학교의 청소년 1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학생 76명, 여학생 67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14.02세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문제성 음주 정도는 한국어판 알콜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알콜중독자의 유병률이 22%이며(이호영, 남궁기, 이만홍, 민성길, 김수영, 송동호, 이은설, 1984), 드러나지 않은 문제성 음주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 25%(36명)를 문제성 음주자 자녀로 분류하였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cut-off point는 11점이었다. 응답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음주에 대해 보고하였고, 어머니를 문제성 음주자라고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문제성 음주자인 부모는 아버지로 제한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4$ 이었다.

부모의 음주 빈도. 부모의 음주 빈도를 일주일과 한 달 단위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싸움 빈도. 부모의 싸움 빈도는 거의 싸우지 않는다(0)에서 거의 매일 싸운다(5)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 기능. 가족 기능은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 능력과 가족의 응집력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은 박효원(1993)이 번안한 Beavers, Hampson과 Hulgus(1990)의 자기 보고식 가족 평가 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의 하위 영역 중에서 가족의 정신 건강과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의 응집력은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곽기우, 이해리, 윤방부(1990)가 번안한 Olson, Portner, & Lavee(1985)의 가족 적응력과 응집력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중에서 응집력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요인 분석을 통해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과 가족의 응집력 척도의 문항 중에서 요인 값이 적은 문항을 제외시킨 20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4점 척도이며(전혀 아니다: 0점, 항상 그렇다: 3점),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가족의 응집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1$ 이었다. 세부적으로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84$, 가족의 응집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85$ 이었다.

우울. 우울은 Zung(1967)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손영균(1993)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 성향이 강한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아니다: 0점, 항상 그렇다: 3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경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1$ 이었다.

불안. 불안은 Zung(1967)의 Self-Rating Anxiety Scale을 손영균(1993)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 성향이 강한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아니다: 0점, 항상 그렇다: 3점).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경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불안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4$ 이었다.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는데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General Self-Esteem)를 박미영(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된 4점 척도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0점, 항상 그렇다: 3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을 높게 지각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7$ 이었다.

설계 및 분석

먼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싸움 빈도,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간의 관련성을 상관 값으로 살

펴보았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모의 싸움 빈도와 가족 기능, 자녀 적응에 미치는 특징을 좀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 두 집단으로 나누고 t 검증을 하였다.

결과

측정변인들간의 상관이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심할수록 부모의 싸움 빈도가 높았다(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부모의 싸움 빈도 $r = .45, p < .01$). 그리고 부모의 싸움 빈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과 가족의 응집력은 낮았다(부모의 싸움 빈도와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r = -.58, p < .01$, 부모의 싸움 빈도와 가족의 응집력 $r = -.48, p < .01$).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부모의 싸움 빈도는 가족 기능과 상관이 높은데,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에 비해 부모의 싸움 빈도가 가족 기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적응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부모의 싸움 빈도보다 가족 기능과 상관이 높았다.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과 응집력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심하고, 자존감이 낮았다(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과 우울 $r = -.36, p < .01$,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과 불안 $r = -.34, p < .01$,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과 자존감

표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싸움,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을 측정한 변인들간의 상관 ($N = 143$).

	CAST-K	부모의 싸움 빈도	정신건강 /대처능력	응집력	우울	불안	자존감
CAST-K	1.00						
부모의 싸움빈도	.45**	1.00					
정신 건강/대처능력	-.40**	-.58**	1.00				
응집력	-.27**	-.48**	.80	1.00			
우울	.13	.19*	-.36**	-.31**	1.00		
불안	.14	.24**	-.34**	-.23**	.55**	1.00	
자존감	-.09	-.18*	.31**	.33**	-.57**	-.29**	1.00

* $p < .05$, ** $p < .01$.

표 2.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에 따른 부모의 싸움 빈도,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을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N=36)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 (N=36)	<i>t</i>
부모의 싸움 빈도	1.24(1.02)	.34(.48)	-4.68**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15.44(6.94)	22.14(5.40)	4.57**
옹집력	13.00(7.10)	16.67(6.07)	2.36*
자녀의 우울	49.17(8.80)	47.44(6.78)	-.93
불안	44.17(8.04)	40.89(7.22)	-1.82
자존감	14.56(6.91)	15.47(6.16)	.59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p*<.05, ***p*<.01.

r=.31, *p*<.01, 가족의 옹집력과 우울 *r*=-.31, *p*<.01, 가족의 옹집력과 불안 *r*=-.23, *p*<.01, 가족의 옹집력과 자존감 *r*=.33, *p*<.01).

표 2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유무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CAST-K 점수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36명이었다. 비교집단으로 CAST-K 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36명을 선택하였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보다 부모의 싸움 빈도가 높고,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 능력이 낮고, 옹집력도 낮다고 지각하였다(부모의 싸움 빈도 *t*=-4.68, *df*=67, *p*<.01,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t*=4.57, *df*=70, *p*<.01, 가족의 옹집력 *t*=2.36, *df*=70, *p*<.05). 그러나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보다 적응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내지는 않았다.

논 의

연구 1에서 응답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음주에 대해 보고하였고, 어머니를 문제성 음주자라고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인 부모가 아버지로 제한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부모

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심할수록, 그리고 부모의 갈등이 심할수록 가족 기능은 낮았다. 또 가족 기능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심하였고, 자존감은 낮았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유무에 따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자신의 가족을 부모의 갈등이 더 크고,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이 낮고, 가족의 옹집력도 낮다고 지각하였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보다 적응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기능이 약하면 자녀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내며,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가 적응의 어려움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한다 (Clair & Genest, 1987; Jarmas & Kazak, 1992; Roberts & Leonard, 1998; Segrin & Menees, 1996; Tubman, 1993; Wright & Heppner, 199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유무로 자녀의 적응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자녀의 적응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나 부모의 갈등보다는 가족 기능과 더 관련 있으며, 가족 기능은 부모의 갈등과 관련 있다. 따라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의 적응은 부모의 문제성 음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2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연구 1에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심할수록 부모의 갈등이 심하고, 부모의 갈등이 심하면 가족 기능이 약화되며, 가족 기능이 약화될수록 자녀는 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보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제안하였던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델로써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자녀의 적응을 측정하는데 행동상의 문제를 포함시켰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가 더 많이 보고 되었다(Tubman, 1993). 따라서 자녀의 전반적인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측면과 자기 개념뿐만 아니라, 행동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간의 연구는 많다(Clair & Genest, 1987; Jones & Houts, 1992; Tubman, 1993; Werner & Broida, 1991). 그러나 부모의 갈등이 문제성 음주자의 두드러진 특성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Buchler, Krishnakumar, Anthony, Tittsworth, & Stone, 1994; Emery, Fincham, & Cummings, 1992; Erel & Burman, 1995; Owen & Cox, 1997; Roberts & Leonard, 1998; West & Prinz, 1987),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갈등을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부모의 갈등은 부부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는 자녀의 적응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모의 갈등이 문제성 음주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는 가족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의 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매개변인이 필요하다.

연구 2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있는 8 중학교의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 79명, 여학생 61명, 평균 연령은 15.03세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문제성 음주 정도는 한국어판 일률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김미래, 장환일, 김경빈, 1995)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2$ 이었다.

부모의 음주 빈도. 부모의 음주 빈도를 일주일과 한 달 단위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갈등 정도. 부모의 갈등 정도는 Grych, Seid 와 Fincham(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박수잔(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아니다(0)에서 항상 그렇다(3)의 4점 척도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갈등 정도를 크다고 지각한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1$ 이었다.

부모의 싸움 빈도. 연구 1에서의 ‘가끔 싸운다’의 문항을 좀더 세분화하여 부모의 싸움 빈도는 거의 싸우지 않는다(0)에서 거의 매일 싸운다(7)의 8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에 따른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을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 (N=34)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 (N=34)	<i>t</i>
부모의 싸움 빈도	2.06(2.01)	.97(1.57)	-2.45**
부모의 갈등	34.06(13.83)	19.13(12.65)	-4.43**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16.82(8.65)	22.71(8.80)	2.78**
응집력	12.13(6.28)	16.28(4.85)	2.96**
자녀의 우울	23.00(6.30)	21.47(8.20)	-.85
불안	19.79(6.52)	19.12(7.37)	-.39
자존감	14.44(5.70)	16.35(5.92)	1.36
비행	15.53(7.84)	11.48(7.28)	-2.19*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p<.05$, ** $p<.01$.

가족 기능. 가족 기능은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 능력과 가족의 응집력으로 측정하였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4$ 이었다. 가족의 정신적 건강함/대처능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86$, 가족의 응집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1$ 이었다.

우울. Zung(1967)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손영균(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78$ 이었다.

불안. Zung(1967)의 Self-Rating Anxiety Scale을 손영균(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75$ 이었다.

자존감.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General Self-Esteem)를 박미영(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86$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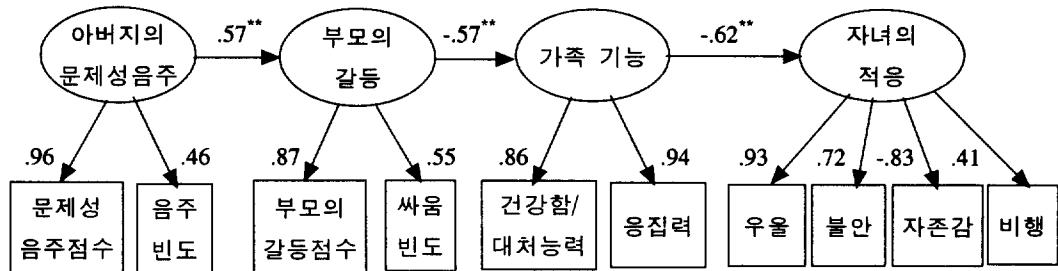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Achenbach와 Edelbrock(1987)의 Youth self-report and profile과 Quay와 Peterson (1987)의 Behavior Problem Checklist를 박효원(1993)이 번안한 청소년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4점 척도이며(아니다: 0점, 항상 그렇다: 3점),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88$ 이었다.

설계 및 분석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그리고 자녀의 적응간의 인과적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표 3은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유무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CAST-K 점수의 상위 25%(34명)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로, CAST-K 점수의 하위 25%(34명)는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로 분류하였다.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보다 부모의 싸움 빈도가 높고 부모의 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하였다(부모의 싸움 빈도 $t=-2.45$, $df=64$, $p<.01$, 부모의 갈등 $t=-4.43$, $df=60$, $p<.01$). 가족 기능에서도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이 정신 건강/대처능력이 낮고, 응집력도 낮다고 지각하였다(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 $t=2.78$, $df=66$, $p<.01$, 가족의 응집력 $t=2.96$, $df=62$, $p<.01$). 우울,

그림 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 모델. ** $p<.01$.

불안, 자존감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가 차이가 없었지만, 비행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내었다($t=-2.19$, $df=65$, $p<.05$).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의 부합지수는 χ^2 값은 $60.10(df=32)$ 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델에 대한 기초부합지수 GFI 값은 .92, 조정부합지수 AGFI 값은 .87, 표준부합지수 NFI는 .91, 비표준부합지수 NNFI는 .93, 원소간 평균차이 RMR 값은 .07로 모델의 부합지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변인의 경로 계수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 모델의 이론변인과 변인들간의 경로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의 이론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부모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gamma=.57$, $p<.01$), 부모의 갈등은 가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beta=-.57$, $p<.01$). 가족 기능도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beta=-.62$, $p<.01$). 즉,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부모의 갈등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갈등이 심 할수록 가족 기능은 약화되며, 약화된 가족 기능은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자녀의 적응에 관한 모델을 검증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에 대해 보고하였고, 어머니를 문제성 음주자라고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문제성 음주자인 부모는 아버지로 제한되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갈등이 더 크고, 가족의 정신 건강/대처능력이 낮고, 가족의 응집력이 낮다고 지각하였다. 적응에서는 대체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가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행 행동은 더 많이 드러났다. 이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이전 연구(Tubman, 1993)와 일치한다.

연구 2에서는 부부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문제성 음주와 자녀의 적응에 관한 모델을 검증하였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의 문제성 음주만으로는 자녀의 적응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Clair & Genest, 1987; Jarmas & Kazak, 1992; Roberts & Leonard, 1998; Segrin & Menees, 1996; Wright & Heppner, 1991).

부모의 갈등은 음주 문제 외에 문제성 음주자가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특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성 음주자의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합의를 가질 것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아버지의 음주 문제에 대해 보고하였고, 어머니를 문제성 음주자라고 보고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인 부모가 아버지로 제한되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가족과 음주 문제가 없는 가족이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제성 음주자의 가족은 음주 문제가 없는 가족보다 부모의 갈등이 더 많았고 가족 기능도 낮았는데, 이전의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Clair & Genest, 1987; Jarmas & Kazak, 1992; Roberts & Leonard, 1998; Tubman, 1993).

그러나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자체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연구 1에서는 자녀의 적응을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인 측면과 자존감과 같은 자기 개념의 측면으로 측정하였고, 연구 2에서는 적응의 정서적인 측면과 자기 개념의 측면 외에 비행 등의 행동적인 측면을 보완하였다.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유무에 따라 자녀 적응의 정서적인 측면과 자기 개념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와 행동상의 문제에서 차이가 없었다(Wright & Heppner, 1991). 그러나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들이 음주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Tubman, 1993). 이는 연구 대상의 나이에 따른 차이로 여겨지는데,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는 적응의 다른 측면보다 일찍 드러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기능은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가족의 정신 건강이나 대처능력, 그리고 응집력이 낮은 가족의 자녀일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심하고 자존감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는 모델이 상관자료로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좀더 인과적인 모델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와,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 자녀의 적응의 종단적인 연구나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인과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부모의 갈등, 가족 기능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적응에는 가족 외에도 친구들이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자아 탄력성이나 자아 성장의 욕구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개인의 특성도 영향을 준다(Kashubeck & Christensen, 1992).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의 가족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의 문제성 음주는 가족들에게 부적인 영향을 주며, 가족 기능을 떨어뜨린다. 문제성 음주는 재발

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음주와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크며, 문제성 음주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어렵고 치료의 효과도 크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부모의 갈등과 관련이 크고, 부모의 갈등이 부모의 문제성 음주보다 가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문제성 음주자의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녀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21, 1182-1192.
- 박미영 (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영역별 우열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수잔 (1996).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효원 (1993).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제유형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손영균 (1993). 문제성 음주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호영, 남궁기, 이만홍, 민성길, 김수영, 송동호, 이은설 (1984). 강화도 정신과 역학 연구(3): 주요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 *신경정신의학*, 28, 984-999.
-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곽기우, 이해리, 윤방부 (1990).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FACES III)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 학회지*, 11, 8-17.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7).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PA.
-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Y. F. (1990). *Beavers Systems Model Manual*. Texas: Southwest family institute.
- Buehler, C., Krishnakumar, A., Anthony, C., Tittsworth, S., & Stone, G. (1994). Hostile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maladjustment. *Family Relations*, 43, 409-416.
- Burns, A. (1984). Perceived causes of marriage breakdown and conditions of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551-562.
- Clair, D., & Genest, M. (1987).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of offspring of alcoholics fa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345-355.
- Emery, R. E., Fincham, F. D., & Cummings, E. M. (1992). Parenting in context: Systemic thinking about parental conflict and its influence o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909-912.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Jackson, J. G. (1985).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fathers as compared with adult daughters of non-alcoholic fa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198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 338B.
- Jarmas, A. L., & Kazak, A. E. (1992). You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Depressive experiences,

- coping styles,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244-251.
- Jones, D. C., & Houts, R. (1992). Parental Drink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Young Adul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3, 48-56.
- Kashubeck, S., & Christensen, S. (1992). Differences in distress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56-362.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z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rford, J. (1990). Alcohol and the family. In L. T. Kozlowski, H. M. Annis, H. D. Cappell, F. B. Glaser, M. S. Goodstadt, Y. Israel, H. Kalant, E. M. Sellers, & E. R. Vingilis (Eds.), *Research advances in alcohol and drug problems*. New York: Plenum Press.
- Owen, M. T., & Cox, M. J. (1997). Marital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infant-parent attachment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52-164.
- Power, C., & Estaugh, V. (1990). The role of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in shaping drinking behavior in early adulthood.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521-530.
- Quay, H. C., & Peterson, D. R. (1987). *Manual for the 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 University of Miami. Coral Gables.
- Roberts, L. J., & Leonard, K. E. (1998). An empirical typology of drinking partnerships and their relationship to marital functioning and drinking consequ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15-526.
- Rodney, H. E., & Rodney, L. (1996). An exploratory study of African American collegiat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4, 267-27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grin, C., & Menees, M. M. (1996). The Impact of Coping Styles and Family Communication on the Social Skills of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 29-33.
- Tubman, J. G. (1993).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alcohol use, and problem behaviors among school-age children. *Family Relations*, 42, 81-86.
- Werner, E. E. (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 34-40.
- Werner, L. J., & Broida, J. P. (1991). Adul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s a function of familial alcoholism and dysfunc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 249-252.
- West, M. O., & Prinz, R. J. (1987). Parental alcoholism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02, 204-218.
- Wright, D. M., & Heppner, P. P. (1991). Coping among nonclinical college-age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65-472.
- Zung, W. W. K. (1967). Factors influencing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ic*, 16, 547.

원고 접수일 2000. 7. 20.

수정원고접수일 2000. 10. 25.

제재결정일 2001. 1. 10.

The Impact of Father's Problem Drinking on the Child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Functioning

Eun-Jeong Min Chang-Hee Hong Min-Young Yi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tudent Guidance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were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functioning on the relations of father's problem drinking to child adjustment. Study 1 was to assess the relations among father's problem drinking, inter-parental conflict,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143 students of a middle school. Results suggested a possibility that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functioning might mediate the relation of father's problem drinking to child adjustment. Study 2 was to determine whether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functioning mediated the relation of father's problem drinking to child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140 middle school students. Structural analysis was used to specify the relation among father's problem drinking, inter-parental conflict,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adjustment.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functioning appeared to mediate the relations of father's problem drinking to child adjustment. Results of these studies suggested positive inter-parental relation may enhance family functioning, which in turn may enhance child adjustment attenuating the negative effect of father's problem drinking. Limitation of these studies and further study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problem drinking, inter-parental conflict, family functioning, child adjustment